

기독교 대학교 학생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고기숙 (Ki Sook Ko)**

ABSTRACT

This qualitative study explores how students at a Christian university perceive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aiming to inform the direction of faith-based social work education and practice. Data were collected from 44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a “Christian Worldview” course offered by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B University during the second semester of 2022. Through group discussion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qualitative data were gathered and analyzed using inductive thematic analysis and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The analysis of the qualitative data identified a total of five categories, nineteen themes, and seventy-one meaning units. The five main categories are as follows: (1) empathy toward socially marginalized groups, (2) efforts for community restoration, (3) components of Christian social worker identity, (4) social work practice grounded in Christian values, and (5) faith-based sources for future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Christian empathy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at the essence and practical elements of Jesus’s empathy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raining processes. Universities and field practice settings need to systematize efforts for community restoration and training for Christian social worker identity, including the biblical foundations, principles, and examples of social welfare, as well as virtues such as trust, sincerity, and respect.

* 2026년 5월 9일 접수, 6월 8일 최종수정, 6월 10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6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백석대학교(Baekseok University)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충남 천안시 (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 ksko@bu.ac.kr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applying the core elements of social work practice grounded in Christian values while seeking inclusive ways to practice them without explicitly emphasizing religious overtones. It also proposes developing practical programs that incorporate Scripture, prayer, faith-based fellowship and activities, and faith-based reflection, and operating these programs in cooperation with churches.

Key words: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identity of Christian social workers, Christian values, 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엡 2:8-10; 요 15:12). 성경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돌보는 일을 신앙인의 중요한 책임으로 제시하며, 이 가르침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중요한 신앙적 과제로 가르친다. 예를 들어, 레위기와 신명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보고 보호함으로써 존엄한 삶을 영위하도록 권면하며(레 19:9-10; 신 15:7-8), 아모스서는 억압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회복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암 5:11-12, 24). 이러한 구약의 가르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적 연대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구약의 이러한 메시지들을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심화하고 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모범을 제시하셨으며, 그 외 다양한 사역에서 가난한 자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삶 가운데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이처럼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와 공동체를 향한 책임의 차원을 아우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사회복지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근대 사회복지의 시초로 알려진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와 인보관(Settlement House) 운동에서 기독교인 자원봉사자들은 실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엄명용 외, 2011: 48-49), 이는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복지실천의 원동력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은 근대 사회복지의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1950년대 전후의 전근대적 복지행정기에는 종교단체와 외원단체들이 주도하여 고아와 기아 등 요보호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립하였다(권중돈, 2022: 84-85). 이때 사회복지를 실천한 대표적 단체로는 기독교 세계봉사회(Christian World Service)가 있다(엄명용 외, 2011: 59). 이러한 기독교적 활동은 우리나라 초기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적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사회복지 전문화와 함께 강조된 종교적 중립성은 사회복지실천이 특정 종교적 기반을 넘어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서비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최무열, 2004: 12). 이에 따라 많은 사회복지기관은 프로그램 제공 시 종교적 색채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기독교적 정체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이 제한되거나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은 실천가가 전제하는 인간관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Vanderwoerd(2016)는 사회복지실천과 교육에 내재된 가치 전제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사회복지교육과 실천에서 세계관에 대한 성찰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을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욕구를 지닌 전인적 존재로 이해하게 하며, 이러한 인간 이해는 실천 현장에서 소외된 이웃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박창우, 2009).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적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전인적 접근과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이준우, 2024). 최근 기독교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일부 있으나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중 기독교적 가치와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한 한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이 직면하는 주요 실천 딜레마 중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원조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적 방법을 활용하는 문제였다. 공공 성격을 가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실천할 때 기도나 전도와 같은 실천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종교 중립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벗어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양혜원, 2017).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종교적 다양성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기독교적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과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단순히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재단의 성격, 운영이념, 역사와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실천가가 어떠한 인간관, 가치관, 신앙관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원조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미래 실천가인 대학생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화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향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발전과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한 연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을 분석하거나(박창우, 2021), 기독교인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정상원·한은영, 2023), 교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박일연·노길희, 2013). 또한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과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사례를 질적으로 탐색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김희수·양혜원, 2008 ; 양혜원, 2017).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기독교인, 교인, 현직 기독교 사회복지사,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 실천 경험, 역할 인식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수업 운영을 질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양혜원, 2024). 이 연구는 강의계획서, 수업과정기록, 과제물, 강의평가 등을 분석하여 수강생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고민하고 인식을 발전시키며, 그 실천 방법을 모색하고 터득해 가는 학습 성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교수법을 함께 탐색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 기반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수업 운영의 중요성과 효과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만 해당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 기반 수업 운영과 그 학습 성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의미, 실천 준비 요소,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구별되는 고유성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은 향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진입할 잠재적 실천가로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교육적 맥락 속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이해하고 의미화해 가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 어떠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향후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의미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구조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실천가들이 신앙과 전문성을 통합해가는 인식의 경험을 파악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및 교육이 나아가야 할 실천적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 대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인식하는가? 셋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II. 문헌검토

1.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가치체계에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 자유와 평등, 이타주의, 인간의 회복 등은 두 체계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들이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의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부적응을 개선하며, 사회정의와 개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생-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반면, 기독교사회복지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이해한다. Kuyper에 따르면, 인간의 기원은 단지 생물학적 부모에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세계 질서 속에서 이해된다. 곧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존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요컨대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육체적 차원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Kuyper, 최용준·임경근 역, 2023).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는 인간의 회복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 회복과도 깊이 연결된다. 기독교사회복지는 샬롬(shalom)과 디아코니아(diakonia)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와 통전적 인간 회복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접근은 인간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로 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영적이고 전인적 접근 및 회복을 중시한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적 구원을 포함한 전인적 회복을 지향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적 기반인 샬롬과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샬롬은 개인과 공동체가 평화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가정·사회·국가 차원의 평화와 질서, 정의로운 사회 형성, 상호지원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는 인간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관계적·사회적·영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전인적 회복의 이상과 연결된다(최무열, 2004: 14).

디아코니아는 샬롬의 이상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개념으로, 봉사와 헌신을 의미한다. 이는 예수의 사역과 제자들의 섬김을 포괄하며, 경제적·심리적·관계적·사회적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해방을 지향하는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최무열, 2004: 15). 따라서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개인 및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체화하려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샬롬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상을, 디아코니아는 그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실천 원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기독교인, 교회, 기독교 이념에 기반한 기관과 단체가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물질적·심리적·사회적·영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전인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으로 이해된다.

2.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경적 근거와 실천 사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바로의 압제와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신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위한 법을 제정하셨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압을 반복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20~23장)에서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남편 없는 아내에 대한 보호를 명령하며,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폭넓게 연구한 한 연구자는 공의가 단순히 올바른 재판을 넘어서는 폭넓은 개념임을 강조한다. 그는 공의의 예로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돌려주라는 명령(신 24:13), 억울함과 압박, 궁핍을 해소하라는 요청(시 72:1), 종이 왕의 대접을 받도록 하라는 가르침(사 19:28), 적은 소득을 보전하게 하라는 권고(잠 16:8), 헐벗은 자를 입히라는 명령(사 25:8), 곤고하고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신원하라는 요청(잠 31:9), 빈민에 대한 학대를 허용하지 말라는 경고(전 5:8),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변호하라는 권면(렘 22:15)을 들고 있다(최옥채, 2019).

이러한 공의는 오늘날 사회복지에서 관심을 두는 대상자들과 그들의 문제들을 성경이 이미 깊이 다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약에 나타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약자도 살기 좋은 사회, 곧 약자의 복지가 물처럼 흐르고, 약자를 위한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사회(사 11:6-7, 암 5:24)로 요약될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마태복음 25:31-40의 최후 심판 장면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강조하신다. 이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나눔 공동체로서 구제와 도움을 실천했던 사례가 나타난다. 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를 통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재산과 소유를 나누었으며(행 2:41-47), 집사뿐 아니라 사도들 역시 가난한 이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행 11:29-30). 그런데 이러한 나눔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초대 공동체 안에는 실제 생활 장면에서 긴장과 불균형이 드러나기도 했다. 게르트 타이센은 고린도전서 11:17-34에 나타난 “바울의 사회적 관심”을 분석하면서, 당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간의 불화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교회 내에서 부유층이 모임을 주최할 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들보다 자신과 지위가 비

스한 이들에게 더 좋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내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바울은 주의 만찬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권면·중재하여, 형제자매가 다시금 하나 된 공동체로서도록 이끌었다(Meeks, 박규태 역, 2021: 378-380). 이 맥락에서 Keller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형편이 어려운 이들, 불우하고 낙담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만 맡길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Keller, 조수아 역, 2024: 20).

예수님은 신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본보기를 제시하셨다(눅 10: 25-37).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지를 되물으셨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대답하였고, 예수님은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답하셨다.

Keller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위험한 지역으로, 가파르고 험난하여 ‘피의 길’로 불리며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다. 강도들에게 습격당한 한 유대인이 길에 쓰러져 있었으나, 제 사장은 이를 보고도 멀리 돌아갔고, 레위인 또한 외면하였다. 그들은 종교적 의무나 규율을 우선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멈추어 서서 강도당한 유대인을 붙잡히 여기며,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 밤새 간호하였다. 다음 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 비용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Keller, 이지혜 역, 2017: 8-12).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고 하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임을 강조하셨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안전과 편의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며, 경제적 도움과 사후관리까지 책임졌다.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자비를 실천하였다. 폭력 피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과 기술, 자원을 동원해 돕는 그 실천이 바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공감과 능력, 자원을 동원하여 도울 것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신 이웃 사랑의 실천 예시는 현대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적용하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사례들은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실천적 사랑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반으로 한 영적 회복과 전인적 돌봄을 포함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자료는 B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학부에 개설된 전공학문 기반 ‘기독교 세계관’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¹ 연구 참여자는 수업 참여 학생 총 44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참여자 개개인의 심층적 진술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44명 개별 특성을 나열하는 대신 집단 전체의 특성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학생 13명(29.5%), 여학생 31명(70.5%)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1명(2.3%), 2학년 25명(56.8%), 3학년 15명(34.1%), 4학년 3명(6.8%)이었다. 전공은 사회복지학부 34명(77.3%), 경상학부 외(경찰학, 문화예술, 컴퓨터공학)가 10명(22.7%)이었다. 기독교 신앙 여부는 기독교인이 14명(31.8%), 기독교인(무교, 타종교 등)이 30명(68.2%)이었다.²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특성(n=44)

구분	범주	빈도(%)
성별	남학생	13 (29.5)
	여학생	31 (70.5)
학년	1학년	1 (2.3)
	2학년	25 (56.8)
	3학년	15 (34.1)
	4학년	3 (6.8)
전공	사회복지학	34 (77.3)
	경상학부 외(경찰학, 문화예술, 컴퓨터공학)	10(22.7)
기독교신앙 여부	기독교	14 (31.8)
	비기독교(무교, 타종교 등)	30 (68.2)
	합계	44(100)

1)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 교과목을 통해 도출된 전체 자료 중, 본 논문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유목적적 표집을 통해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자료 중 특정 영화(예수는 역사다) 매체 관련 토론 자료는 저자의 선행연구(고기숙, 2024)에서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동일한 수업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되, 수업 후반부인 9~14주차에 다루어진 ‘기독교와 사회복지실천의 인식’ 관련 자료만을 선별하여 새롭게 분석하였다. 즉 선행연구가 영화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경험에 주력했다면, 본 연구는 학생들이 지닌 신앙적 가치관이 사회복지실천과 만나 어떻게 전문적 인식으로 구체화 되는지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공통의 원자료 수집 환경을 공유하지만,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문제, 연구질문, 분석 단위 및 학술적 초점이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 연구이다.

2) 해당 수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희망할 경우 타 학부 학생도 수강할 수 있다. 이들 타 학부 참여자들 역시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인식을 진술할 수 있는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독교 대학생”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수업의 교재는 『섬기는 리더를 위한 복지 길라잡이』(장종현 편저, 2018)이다. 전반부에는 주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고, 후반부에는 기독교와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후반부인 9주차부터 14주차 기간의 내용은 사회복지전문가의 기독교적 영성,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복지실천, 행복, 사회적 소수자에게 한 걸음 다가서기, 기독교의 창으로 본 사회정의와 공동체 정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경적 리더십 등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9~13주차에 이루어진 조별 토론과 14주차에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 자발적 참여자 3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 조별 토론은 9~13주차에 5~8명으로 구성된 8개 조를 중심으로, 각 수업 시간(총 1시간) 중 약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자 1인이 교수자로서 수업을 운영하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8개 조의 토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각 조를 순회하며 토론 과정을 촉진하였다. 토론 질문은 교수자가 제시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문제와 약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리더의 준비는 어떠한가 하는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14주차에 자발적 참여자 3명을 대상으로 1회, 약 90분간 이루어졌다. 이때 사용한 질문은 조별 토론 질문보다 한층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현장에서 ‘기독교적 영성을 지닌 사회복지 전문가’는 어떠한 실천 동기를 가져야 할까요?”, “예비 전문가로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요 4:5-15)를 통해 본 ‘기독교적 사회복지실천’의 특징과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경적 리더십은 어떤 모습인가요?” 등이 포함되었다.

모든 조별 토론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편안한 의사소통을 위해 녹음 대신 조별 보고서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별도의 녹음 없이 토론을 마친 후 각 조원이 자신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장이 이를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별 보고서 형식을 취한 이유는 학생들이 토론 중 자신이 한 말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미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44명의 자료를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적 분석의 깊이 문제를 보완하고, 분석의 엄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방식이었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조별 토론 보고서 A4 용지 기준 100쪽가량, 인터뷰 전사본 15쪽가량으로, 총 115쪽가량에 해당한다.

본 수업은 과목의 성격상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지향하는 수업으로 Overman과 Johnson이 통

합수업을 위해 제안한 BWI(Biblical Worldview Integration)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BWI 방식은 수업 내용을 기독교 세계관의 큰 이야기와 의미 있게 연결하는 수업 설계 틀로 이해해 볼 수 있다(Overman & Johnson,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역, 2007). 즉, 성경 구절을 단순히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 자체를 하나님-창조-타락-구속-완성(회복)의 관점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까지 조망하게 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이 모델을 본 수업에 응용·적용하였다. 요약하면, 먼저 교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기독교 세계관(창조-타락-구속-완성), 성경 내 다양한 내러티브, 성경적 가치들과 연결한 뒤, 질문과 토론으로 일관되게 전개하였다. 아울러 수업 후에는 연구자이자 교수자로서 성찰일지를 통해 자체 수업 평가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왜 배우는가”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함께 사유하는, 지식-신앙-삶의 통합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탐색하기 위해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의 초점은 자료로부터 의미와 주제를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 수집된 조별 토론 보고서와 심층 인터뷰 자료를 김인숙(2024)이 제시한 귀납적 주제분석의 절차와 Strauss와 Corbin의 지속적 비교방법(Strauss & Corbin, 신경림 역, 2001)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의 5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전체 맥락 파악과 자료 숙지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 어떠한 태도, 인식, 의미 부여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였다. 둘째, 개방코딩을 통해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를 줄 단위 또는 문단 단위로 자세히 검토하면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주요 진술을 선별하고, 각 진술에 내포된 의미를 코드로 명명하였다. 셋째, 도출된 코드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관련 의미들을 묶어 주제로 유목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주제가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자료의 의미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넷째, 유목화된 주제들을 더 높은 수준의 추상적 개념으로 통합하여 범주를 구성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각 범주 간의 논리적 연결성, 주제와 범주의 적절성, 그리고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와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다섯째, 도출된 주제와 범주가 참여자들의 실제 진술과 경험을 왜곡 없이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자료와 분석 결과를 반복적으로 대조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최종 범주와 주제를 확정하였다.

4. 질적 연구의 평가 및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평가 기준인 신뢰성(credibility), 중립성(confirmability), 전이성(transferability), 일관성(dependability)을 연구 전 과정에 적용하였다(Lincoln & Guba, 1985: 289-331). 먼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부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평가나 판단에 대한 염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가 실제 수업 현장의 맥락과 참여자의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인적·신앙적 관점이 자료 수집 및 해석에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교수자이기도 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편향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서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분야 연구자 및 기독교 학문 관련 교수들로부터 연구문제, 분석 틀, 분석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자료 해석의 일관성과 연구의 엄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이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 맥락, 참여자 특성,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이 일관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조별 토론지, 심층 인터뷰 전사본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가 본 연구의 맥락과 절차를 이해하고,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리적 고려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수업 시작 시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 활용 범위를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여부가 성적 평가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만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연구 진행 중 언제라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교수자와 학생의 관계가 연구 참여와 자료 제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성적 평가는 출석, 중간고사와 기말시험, 과제 제출 여부 등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조별 토론지와 심층 인터뷰 자료의 분석은 학기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시작함으로써 수업 평가와 연구 자료 분석을 분리하였다. 아울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분석 및 결과 제시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범주화하여 처리하였다. 한편, 본 연구자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로서 기독교적 가치와 사회복지전문직 실천의 통합에 관한 학술적 탐구를 지속해 왔으며, 목회학(M.Div) 과정을 이수하여 신학적 기초와 이론적 민감성을 갖추었다. 또한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지에 게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 코딩, 범주화, 타당성 검토에 이르는 질적 분석 절차를 수행하였다.

IV. 기독교 대학교 학생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기독교 대학교 학생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 총 5개의 범주, 19개의 주제, 71개의 의미가 도출되었으며, 이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 2 참조.

표 2. 기독교 대학교 학생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인식의 결과

의미	주제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와 독거노인 문제 경험함. 장애인이동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 희귀난치질환 가진 아이들과 노숙인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임.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생각.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1.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이 도움을 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사랑해야 함을 느꼈음. 소수자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생각해 봄. 	(2) 도움 의식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거노인들처럼 보호자가 없는 경우 국가의 지원 필요. 공동체 정신을 갖추고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음. 소수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나도 어느 때 소수자가 될 수 있을 것임. 	(3)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고 인격체로 인정함. 소수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주변 이혼가정 차별과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소수자에 대해 편견 없는 시선 필요함. 	(1)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는 삶이 중요함.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 주변인들에게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함. 1인분 이상의 삶을 살고 싶음. 	(2) 직접적 실천 행동의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해야 함.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문가 되고 싶음. 주변에 미혼모가 있는데 차별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싶음. 	(3) 권리옹호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실천해야 함.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 사람을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존중해야 함. 	(4)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와 사회복지는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았음. • 기독교와 복지의 접목에 대해 알 수 있었음. • 기독교가 사회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 기독교가 사회정의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됨. 	<p>(1) 기독교와 복지의 연관성에 대한 자각</p>	<p>3. 기독교사회복지사 정체성의 요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신뢰, 성실함이 중요함. • 정직, 공정, 근면, 성실한 사람이어야 함. •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함. • 클라이언트를 품어야 할 것임. 	<p>(2) 기독교사회복지사의 덕목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사람. •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회복지사 역할에 충실해야 함. •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 사람을 대해야 함. • 성경적 동기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며 나아가야 함. 	<p>(3) 사람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에서 뿐 아니라 교회밖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함. •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음. 	<p>(4) 신앙과 실천의 통합을 지향하는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님의 사랑을 현장에서 실천해야 함. •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실천에 임해야 함. •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야 함. •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랑, 나눔, 헌신을 실천해야 함. 	<p>(1) 기독교적 사랑 위에 튼튼한 기초 세우기</p>	<p>4.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사회복지를 실천해야겠음. •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회복지사를 이해해 볼 수 있었음. • 모든 클라이언트를 공정하고 동등한 자세로 대해야 함 •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 중요함. 	<p>(2)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나아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노력. • 이상적 세상,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회복되는 세상. • 좋은 세상을 위해 주님과 교제, 기도, 묵상, 성령충만에 힘쓰는 일. • 공정, 공평, 지도자와 종교인들 더 정의로운 삶 지향. 	<p>(3) 실천의 궁극적 목적 깨닫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성과 영성을 모두 겸비한 전문가가 되어야 함. •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함. • 인품이 좋지 않으면 진정한 도움을 못 줄 것임. • 클라이언트의 종교적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실천 	<p>(4)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역량 갖추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말씀 통해 위로를 받음. •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보며 신을 믿게 됨. • 기독교적 활동 통해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나에게 오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임을 기억함. 	(1) 성경 말씀의 힘	5. 미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신앙적 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 천국으로 가시도록 기도하여 잘 이별할 수 있었음. • 기도 후 문제가 점차 해결되는 경험을 함. • 번아웃 증 중 찬양과 기도 통해 안정감 찾았던 경험 있음. • 친구 어머니의 질병 완치에 종교적 힘이 큰 도움이 되었음. 	(2) 기도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인 친구가 금주하며 성경 통해 위안받는 모습을 보며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 생각이 생김. • 종교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발전을 경험함. • 청년부 목사님과 일년에 두번 정도 만나 조언과 기도를 들음. • 기독교인 동기의 친절한 행동을 보며 좋은 영향 받음. 	(3) 신앙적 교제와 활동 참여를 통한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을 읽으며 내면세계를 성찰하는 경험을 가짐. • 종교 통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가는 모습 보며 행복감 가짐. • 무교인데 종교를 가졌더라면 삶에 긍정적 영향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며 삶이 회복되는 경험을 함. 	(4) 신앙적 성찰의 힘	

1.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참여자들은 주로 노인과 장애인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이들은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특히 고독사 문제와 독거노인의 삶의 질 저하에 공감하고 있었다(참여자 2).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관심도 두드러졌는데, 한 참여자는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지적하며 시각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제약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참여자 38).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노숙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과 희귀성 난치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겪는 고통(참여자 34),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참여자 7)이 어려움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³

최근 들어 쓸쓸하게 고독사로 돌아가신 노인들의 사연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가 이들에게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정말로 도움이 간절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참여자 2).

길을 걷다 보이는 노숙인들이 사회적인 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욕구에 기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합니다(참여자 34).

3) 참여자들의 직접적이고 생생한 토론 자료는 지면 관계상 2~3개가량 제시하였다.

(2) 도움 의식 고취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하며,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참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고민하였다(참여자 6). 또 다른 참여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참여자 13). 또한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자연스러우면서도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참여자 8). 이외에도 여러 참여자는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사랑해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사회복지전공생으로서 나는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장애인 소수자들이 자립하는 힘을 갖도록 사회복지사로서 도움을 주고 싶으며,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3).

주변에 사회적 소수자 중 장애인을 유독 많이 접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대하며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거나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하지 않고, 도움을 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참여자 8).

(3)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향

참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수업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였다(참여자 18). 다른 참여자는 사회적 약자를 적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독거노인과 같이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참여자 2).

수업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업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 저의 삶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과 또 사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였습니다(학생 18).

독거노인들의 경우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참여자 2).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1)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참여자들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기본이며, 더 나아가 그들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참여자 1). 한 참여자는 이혼 가정 등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참여자 15). 또 다른 참여자는 학교 내에서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참여자 30). 대부분 참여자들도 사회적 약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참여자 16).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와는 완전 거리가 멀다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소수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와주는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점을 고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참여자 1).

저는 현재 장애인 복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고 싶으며,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힘쓰고자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지도하는 것도 사회복지사로서 공헌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6).

(2) 직접적 실천 행동의 의지

참여자들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적인 실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참여자는 주변에 여성, 아동, 노인 등 소외된 이들이 많다고 하며 이들의 취약함을 잘 파악하여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참여자 19). 한 참여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참여자 18). 또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주변인들에게 베푸는 삶을 지향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참여자 32). 한 참여자는 자신의 실천 행동 의지를 ‘1인분 이상의 삶’으로 표현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참여자 20).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은 1인분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 이기적이고 개인의 이득만을 위한 삶을 살기 쉽기 마련입니다. 이런 삶은 사랑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참여자 20).

나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이 있습니다. 사회정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위해서는 소수자를 위한 인식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야 하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9).

(3) 권리 옹호 노력

참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표현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였다(참여자 13). 참여자들은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참여자 9). 한 참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하며, 장애인 권리 옹호를 중요한 실천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참여자 16). 또 다른 참여자는 아는 사람 중에 미혼모가 있는데,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다고 하였다(참여자 6).

제 주변엔 미혼모가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기울일 수 있는 관심은 차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분이 어떠한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차별을 하더라도 저는 감싸주고 싶습니다(참여자 6).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고 싶습니다(참여자 16).

(4)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참여자들은 사람을 존중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참여자 3, 37, 38). 한 참여자는 사회가 사람을 주로 능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참여자 2). 한 참여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참여자 11).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약자를 귀하게 대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회복지 전문가는

동료와 클라이언트 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자세와 감사의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38).

기독교적 영성을 지닌 사회복지 전문가는 선하고 정의로운 동기를 바탕으로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늘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참여자 37).

3. 기독교사회복지사 정체성의 요소들

(1) 기독교와 복지의 연관성에 대한 자각

기독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기독교와 복지의 연관성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게 나타났다(참여자 2). 참여자들은 기독교 대학교에서 학습하며, 기독교와 사회복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참여자 10). 또한, 이들은 기독교와 사회복지를 접목하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참여자 17), 기독교가 사회정의와 공동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음을 알게 되었다(참여자 15).

성적에 맞춰 대학을 오다 보니 기독교 대학교에 오게 되었고 매주 채플을 듣고, 사회복지전공 강의를 수강하면서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참여자 10).

기독교는 사회정의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영성에 대해 이해를 못했는데 수업을 듣고 난 후 영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 15).

(2) 기독교사회복지사의 덕목들

많은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정한 덕목들이 필요하며, 이 덕목으로 신뢰, 성실, 감사, 다름 인정, 존중, 용기, 인내, 따뜻한 마음, 차별하지 않는 마음 등을 꼽았다. 한 참여자는 기독교적 영성을 지닌 전문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참여자 3). 또 다른 참여자는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한다고 하였다(참여자 7).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는 기독교사회복지사들에게 더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와 부드러운 자세, 예의를 갖추어야 하

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특히 약자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참여자 3).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 진심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합니다(참여자 7).

(3) 사람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

기독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사람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참여자가 있었다(참여자 1). 참여자들은 기독교적 영성을 지닌 사회복지사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제공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예의를 갖춘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하였다(참여자 17).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제공하며(참여자 22), 성실과 겸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참여자 10). 기독교사회복지사는 성경적 동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참여자 13).

비종교인이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나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마인드를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매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으면 힘들거나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1).

세상의 시련으로 관계 속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적 영성을 지닌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나에게 오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참여자 17).

(4) 신앙과 실천의 통합을 지향하는 삶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에는 개인의 신앙과 실천을 통합하는 삶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기독교 전문가는 단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참여자 26). 또한, 한 참여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표현하였다(참여자 15).

교회에서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일상생활에서, 직장 및 학교에서 하나님과 이웃,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부터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참여자 26).

사회복지 실천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그룹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5).

4.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1) 기독교적 사랑 위에 튼튼한 기초 세우기

참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대했던 마음을 기억하며,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참여자 25). 참여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는데, 한 참여자는 그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보았고(참여자 12),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보았다(참여자 18). 또한, 그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약자의 어려움과 연약함,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며(참여자 13), 헌신하고 나누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다(참여자 20).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독교적으로도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주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여자 12).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약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어려움과 연약함에 공감하고 성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참여자 13).

(2)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나아가기

여러 참여자들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사회복지실천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36). 많은 참여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모델로 인식하였다. 한 참여자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참여자 16). 특히, 참여자들은 성경 속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기독교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임을 발견하였다(참여자 34).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 보여주신 선입견과 편견 없는 태도가 클라이언트를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하는 사회복지사의 자세라고 여기고 있었다(참여자 10).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모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참여자 18). 또한,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은 참여자들이 있었다(참여자 20, 34).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전에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읽을 때 일차원적으로 성경에 관한 내용만 이해했다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난 이후 예수님을 사회복지사에 대입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어 예수님의 실천을 본받아 직접 실천하고 싶습니다(참여자 16).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동등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필요를 알아차리셨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사정역량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인에게 물을 청한 이유가 단순히 목이 마르기 때문이 아니라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신 것으로 보여,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공감하며 다가가는 법을 본받고자 합니다(참여자 34).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과 상종하는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점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모든 클라이언트를 공평하고 동등한 자세로 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참여자 10).

(3) 실천의 궁극적 목적 깨닫기

기독교적 신앙이 깊은 참여자 중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회복되는 세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도 있었다(참여자 34). 참여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히 지도자와 종교인들이 더 정의로운 삶을 지향해야 함을 표현하였다(참여자 10). 또한,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깊은 교제, 기도와 묵상, 성령 충만을 통해 영적 성숙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참여자 34).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를 가장 먼저 신경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매일 하는 것...나를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연습을 날마다 계속하며 주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사는 일이 제가 공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참여자 34).

사회적 지위와 부를 얻는 길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편법이 많아지면 사회의 공정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사회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더욱더 정의로운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참여자 10).

(4)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 역량 갖추기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적 동기가 기독교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역량의 출발점이라고 인식하였고(참여자 15), 이를 위해 매일 전공 공부와 함께 성경 읽기를 병행하고자 하였다(참여자 17).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쌓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참여자 20). 그러나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의 인품을 겸비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21).

여러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지성과 전문성뿐 아니라, 영성도 겸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자들 가운데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기독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였다(참여자 2). 이는 사회복지기관에서 다양한 종교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배움을 통해, 일상에서 여가 시간을 줄이고 지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배치하여 매일 전공 공부와 성경 읽기를 병행하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목표를 다잡게 되었습니다(참여자 17).

약자를 소중히 여기고 다양한 지식을 쌓아 대상자에게 옳은 복지를 적재적소에 제공해드리는 것이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참여자 20).

아무리 복지 분야에 박학다식한 사람일지라도 인성, 인품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들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그에 맞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사회복지현장에 임해야 합니다(참여자 21).

5. 미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신앙적 원천

(1) 성경 말씀의 힘

미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원천 중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의 힘이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삶에서 어려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불안, 불행감을 느낄 때, 성경 말씀과 기독교적 활동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고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큰 힘이 되며, 이를 통해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참여자 2). 한 참여자는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

습임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싶다고 하였다(참여자 5). 한편, 비기독교인 참여자는 기독교인 친구가 성경을 통해 금주를 유지하고 위안을 얻는 모습을 보며, 기독교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참여자 3).

나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 늘 불안한 상태이고… 전혀 행복하지 않고 쓸쓸해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저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참여자 2).

기독교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놀면서 왜 술을 안 마시는지 물어봤더니 예배드릴 때 금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으며 위안을 받는 친구를 보면서 종교는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와 똑같이 기독교인 지인들을 보면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으며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참여자 3).

(2) 기도의 힘

참여자들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위로와 지혜, 힘이 필요할 때 기도가 내적 안정과 용기를 제공하는 주요 자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하면 기적처럼 차분해진다고 했고(참여자 20), 소진 상태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안정감을 회복한다고 하였다(참여자 36). 또 다른 참여자들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위로받고 마음이 정리되었다고 하였고(참여자 7), 또 다른 참여자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경우도 있었다(참여자 13). 한 참여자는 기도 후 문제 상황이 점차 해결되는 경험을 하였으며(참여자 31), 또 다른 참여자는 어린 시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통해 해결된 경험이 있었다며 회상을 공유하였다(참여자 28). 할머니가 좋은 곳(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잘 이별할 수 있었다고 한 경우가 있었고(참여자 30), 친구 어머니의 질병 완치에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표현한 예도 있었다(참여자 12).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기 전, 무대에 올라가기 전, 발표를 하기 전 심적으로 부담감이 강하게 느껴지고 불안한 감정에 잘 빠지는 성격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적처럼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 전후의 차이는 확실했습니다(참여자 20).

제가 제일 사랑하던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좋은 곳(천국)으로 가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로 인해 저는 슬픔만이 있던 장례식장에서 그나마 마지막엔 행복하고 안정감이 있게 할머니와 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참여자 30).

(3) 신앙적 교제와 활동 참여를 통한 힘

참여자들은 기독교적인 교제와 활동 참여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원동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았음을 진술하였다(참여자 25). 한 참여자는 교회를 통해 알게 된 언니와의 교류에서 큰 정서적 도움을 받았다(참여자 16). 또 다른 참여자는 학교에서 만난 기독교인 동기의 친절한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참여자 1). 참여자들은 목회자와의 만남에서도 조언과 기도를 통해 삶의 힘을 얻고 있었다(참여자 25). 한 참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존감, 대인 관계 능력, 적응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참여자 26).

청년부 목사님과는 일 년에 두 번 정도 개인적으로 만나 평소 생각해둔 고민과 앞으로의 신앙 생활, 진로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며 같이 기도해주십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친구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며 서로 복돋아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참여자 25).

선교, 워십, 성가대 등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물론 큐티, 말씀 묵상, 악기 등 수많은 경험을 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종교활동을 통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은 배가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참여자 26).

(4) 신앙적 성찰의 힘

참여자들은 신앙적 성찰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기독교는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신앙의 긍정적인 영향을 깨닫고 있었다(참여자 18). 흥미로운 점은 비기독교인 참여자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성찰을 통해 신앙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 비기독교인 참여자는 무교이지만 종교를 가졌더라면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하며, 신앙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참여자 27). 또 다른 비기독교인 참여자는 큰 시련이 닥쳤을 때 신을 믿어보고 싶다고 하며(참여자 38), 신앙이 위기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위로에 주목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께 기댈 수 있다는 점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였다(참여자 11).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기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멋지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을 사회복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려운 사람에게 고민 없이 도움을 줬던 성경 말씀처럼 나도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참여자 11).

나는 무교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가졌다면 하고 생각했을 때 종교는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나의 내면세계를 성찰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 나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참여자 27).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및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본질과 고유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독교와 사회복지를 다루는 수업에 참여한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전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천하려고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인식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준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드러났다.

첫째,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출발점으로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노인, 장애인, 노숙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자립 지원,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사랑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핵심 가치인 샬롬과 디아코니아가 예비 전문가인 대학생들의 인식 속에 구체화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은 개인과 공동체의 전인적 평화를 지향하는 샬롬의 비전 및 구약의 공의의 개념을 학생들이 자신의 실천적 지향점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준비로 공동체 회복과 기독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먼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 적극적인 실천 행동, 권리 옹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요약된다. 참여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며, 차별과 편견을 배제하고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또한 봉사와 나눔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진하고 공동체 통합에 기여하려는 실천 의지를 보였다. 더 나아가 차별 예방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참여자들은 신앙적 태도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물리적 지원을 넘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며, 더 나아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타난 사랑의 원리를 현장에서 디아코니아적 봉사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독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은 기독교와 복지의 연관성에 대한 자각, 기독교사회복지사의 덕목, 사람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 신앙과 실천의 통합을 지향하는 삶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기독교가 사회정의와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에 기여해 왔음을 인식하고, 이를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뢰, 성실, 존중 등 기본 덕목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기독교적 영성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지원을 제공하고, 성경적 동기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며, 세상에 빛과 소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실천과 연결하여 실천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ausen과 Funabashi(2024)의 연구와도 연결하여 논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과 사회정의에 대한 태도 사이에 강한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도와 교회 활동 참여와 같은 신앙적 실천이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신앙과 사회복지실천의 연결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신앙과 실천의 통합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으로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과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원천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은 네 가지 핵심 요소로 요약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실천의 기초로 삼아 약자에 대한 공감과 나눔, 헌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기독교적 사랑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근본이라는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Van der Walt(2017)는 나눔이 받는 이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나눌 때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하게 자기 것이 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선입견과 편견 없이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자세를 실천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실천의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회복으로 이해하고, 정의로운 삶과 영적 성숙을 통해 이를 이루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윤혜경·손동신(2025)이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역을 그리스도의 주되심 실천과 정의의 구현으로 파악한 논지와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취약 아동을 중심에 두고 권리 옹호, 연계·협력,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공적 영역에서 가시화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개인과 관계뿐 아니라 제도 차원에서도 구현되도록 지향하는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성경적 동기를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신앙적 인품과 영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가치와 종교를 존중하면서도 기독교적 접근을 적절히 실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구별되게 하는 고유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지향하는 참여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경험에서 기독교적 정체성, 기독교적 사명으로서의 사회복지, 기독교적 인간관, 사회복지실천의 자세 등이 주요 주제로 나타난 김희수·양혜원(2008)의 연구 결과와도 연결된다.

미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신앙적 원천으로는 성경 말씀, 기도, 신앙적 교제와 활동 참여, 신앙적 성찰 등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성경 말씀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으며, 기도와 신앙적 교제, 성찰을 통해 실천의 힘과 방향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일반 사회복지실천이 주로 인간의 변화 가능성, 사회적 지원을 근거로 삼는 것과 달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신앙적 자원과 성경적 근거를 함께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McRay 등은 성경 말씀이 인간이 죄로 인해 소망이 없거나 가치 없는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상태에서의 구속과 희망, 치유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설명한다(McRay et al., 김혜정 역, 2022: 23). King과 Cutsinger(2023)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대학 석사과정생들의 기독교 영성은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힘과 희망, 지침을 제공한다. 여기서 영성은 말씀, 교제, 성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참여자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고 실천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기도는 내적 안정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며, 신앙적 교제와 활동은 정서적 지지와 관계 형성, 성장을 촉진하고, 신앙적 성찰은 내적 회복과 삶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요소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단순

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영적이고 전인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대학과 실천 현장에 제언하면,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독교적 공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사회복지기관이나 대학에서는 사회복지사 혹은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감은 사회복지실천에서 핵심적인 태도와 기술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단순히 학문적 개념이나 기술로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공감은 마음과 영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가장 온전히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질병을 앓는 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공감하시며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함께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감의 본질과 실천적 요소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기독교사회복지 예비 전문가를 위한 훈련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회복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공감을 기반으로 공동체 정신을 내면화하고,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신념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기독교사회복지사 정체성 훈련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훈련에는 성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의 근거, 원리와 사례를 포함하여 기독교와 복지의 접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신뢰, 성실, 존중 등의 기본 덕목과 기독교적 리더십에 필요한 내용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을 연구하고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독교적 가치 기반 실천의 핵심 요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의 기초로 삼기,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실천하기, 실천의 궁극적 목적 깨닫기,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요소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구별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고유성 회복의 과정은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신앙적 동기에 기반하지만, 실제 실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윤리인 클라이언트의 다양성 존중과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실천을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삼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나아가는 태도와 연결하여 인식하였다.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치가 전문직 윤리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게 만드는 윤리적 기반으로 작용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실천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기독교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종교적 색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적 가치를 포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원천인 성경 말씀, 기도, 신앙적 교제와 활동, 신앙적 성찰을 실제 교육·실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말씀, 기도, 신앙적 교제, 성찰 등은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박종삼(2023)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교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해방 이후에도 미션 계통 대학교와 신학교 등 기독교 관련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던 기독교·교회 재단, 그리고 NGO 간의 협력이 지속되어 왔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는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클라이언트의 종교 및 영성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기독교인 클라이언트에게는 기독교적 원천들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문제해결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반면, 비기독교인 클라이언트에게는 이러한 원천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간접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실천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 논의로 이어지며, 장유정(2024)은 통합적 가르침이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독교 학교를 기독교 학교답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학생들의 실천 인식 역시 이러한 통합적 가르침을 통해 예비 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소명 의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인식을 탐색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결과의 전이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첫째, 연구자-교수자 이중 지위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관한 문제이다. 연구자가 해당 과목의 교수자로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참여자들이 성적 평가나 교수자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적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 자료 분석을 시작하고 익명성을 보장하였으나 더욱 엄격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즉, 향후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제3의 독립적인 연구자가 인터뷰나 관찰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자의 위치에서 벗어난 참여자들이 더 솔직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구 설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료 수집 관련하여, 본 연구는 44명 전체의 수업 토론 보고서와 성찰지를 주요 분석 자료로 삼아 인식의 외연을 넓혔으나, 이는 참여자 개개인의 내밀한 삶의 경험과 역동을 깊이 있는 기술로 담아내는 데에는 인터뷰 방식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자발적 참여자 3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보완하여 질적 자료의 깊이를 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의 심층 면담 비중을 높여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기숙 (2024). 영화를 활용한 기독교 세계관 수업 참여 경험: B 기독교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9(3), 83-113.
- 권중돈 (2022).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김인숙 (2024). **질적연구의 방법과 분석**. 집문당.
- 김혜정·심은정·조인효 역 (2022). **현대정신병리학**. McRay, B. W., Yarhouse, M. A. & Butman, R. E. (2016). *Modern Psychopatholog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학지사.
- 김희수·양혜원 (2008).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앙과 학문**, 13(3), 115-164.
- 박규태 역 (2021). **1세기 기독교와 도시 문화: 바울 공동체의 사회 문화 환경**. Meeks, W. A. (1983) *The First Urban Christians: The Social World of the Apostle Paul*. IVP.
- 박일연·노길희 (2013). 교인들의 교회사회복지사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교회와 사회복지**, 24, 83-117.
- 박종삼 (2023). 교회론, 목회론과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신학의 정립방향. **기독교사회복지**, 5, 51-86.
- 박창우 (2009).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복지의 방향. **신앙과 학문**, 14(1), 147-174.
- 박창우 (2021). 그리스도인 사회복지사의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신학과 실천**, 76, 695-716.
- 신경림 역 (2001). 근거이론의 단계.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현문사.
- 엄명용·김성천·오혜경·윤혜미 (2011).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 양혜원 (2017).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3), 141-189.
- 양혜원 (2024). 기독교 세계관 기반 사회복지실천기술론수업 운영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회교육·복지 실천 연구**, 6(1), 62-82.
- 윤혜경·손동신 (2025).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하나님나라운동 실천을 위한 요보호 아동 지원선교. **생명과 말씀**, 41, 142-177.
- 이준우 (2024).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의 의미에 관한 탐색적 고찰: 김덕준, 박종삼, 이부덕의 기독교사회복지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복지**, 6, 7-39.
- 이지혜 역 (2017). **여리고 가는 길 : 비탈지고 안전하지 않은 인생길**. Keller, T. J. (1989) *Ministries of Mercy: The Call of the Jericho Road*. 비아토르.
- 장유정 (2024). 신앙을 통합한 가르침: 새로운 접근의 필요. **생명과 말씀**, 39, 119-158.
- 장중현 편저 (2018). **섬기는 리더를 위한 복지길라잡이**. 뷰리.

- 정상원·한은영 (2023). 기독교인의 복지인식에 관한 연구. *기독교 사회복지*, 5, 87-108.
- 조수아 역 (2024). *집사를 말하다*. Keller, T. J. (1985) *Resources for Deacons*. 두란노.
- 최무열 (2004).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나눔의 집.
- 최옥채 (2019). 사회복지실천 가치로서 성경의 공의에 관한 탐색 : 공의의 용례와 성경해석학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1(2), 251-277.
- 최용준·임경근 역 (2023). *반혁명 국가학1: 원리*. Kuyper, A. (1916).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De beginselen. 국제제자훈련원.
- King, D. & Cutsinger, M. (2023). Faith Integration: Student Perspectives on Spirituality and Social Work in a Christian Master of Social Work (MSW) Program. *E-Journal of Religious and Theological Studies*, 9(7), 338-350.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Vanderwoerd, J. R. (2016). The Promise and Perils of Anti-Oppressive Practice For Christians in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 Christianity*, 43(2), 153-188.
- Tausen, B. M. & Funabashi, A. (2024). Faith in Action?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Religiosity, Race, and Social Justice among Christi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52(2), 206-219.
- Van der Walt, B. (2017). Sharing an integral Christian worldview with a younger generation: Why and how should it be done and received?. *In die Skriflig*, 51(1), 1-11.

기독교 대학교 학생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고기숙 (백석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신앙에 기반한 사회복지교육과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2022년도 2학기 B대학교 사회복지학 부에 개설된 '기독교 세계관' 교과목을 수강한 대학생들 44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집단 토론과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주제분석과 지속적 비교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결과, 총 5개의 범주, 19개의 주제, 71개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다섯가지 주요 범주는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 둘째,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셋째, 기독교사회복지사 정체성의 요소들, 넷째,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다섯째, 미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신앙적 원천 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적 공감 교육을 강화하고, 예수님의 공감의 본질과 실천적 요소를 훈련 과정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대학과 실천 현장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기독교사회복지사 정체성 훈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성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의 근거, 원리, 사례뿐 아니라 신뢰, 성실, 존중과 같은 덕목이 포함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요소를 적용하되, 종교적 색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포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성경 말씀, 기도, 신앙적 교제와 활동, 신앙적 성찰을 포함하는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대학생,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기독교사회복지사 정체성, 기독교적 가치, 질적 연구